



2018년 5월 20일(제876호) **성령 강림 대축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평화가 우리와 함께

고전 중에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그 중 핵심은 주인공인 ‘엘리자베스와 다아시’간에 사랑 이야기 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아시를 ‘오만’하다고만 생각했던 엘리자베스의 ‘편견’이 깨지면서, 다아시의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그들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다아시의 희생’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기에 그녀에 관련된 모든 일을 도와주지만, 그것을 그녀에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바라보며 뒤에서 그녀를 지켜줄 뿐입니다. 결국 그녀가 그에 대한 자신의 편견에서 벗어나 그의 사랑을 받아주었을 때, 그들의 사랑은 완성되어 집니다.

‘오만과 편견’ 속 두 주인공의 관계가 꼭 우리와 성령과의 관계를 대변하고 있는 듯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성령은 숨, 불, 바람, 비둘기 등 여러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모두 우리 가까이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특히 오늘 복음에는 ‘숨’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숨’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할 때의 불어 넣으신 그 ‘숨’(창세 2,7)

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태초부터 그 숨을 받아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는 숨을 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정작 그 숨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의 활동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체험 혹은 의식하지 못하는 쪽은 결국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자신의 편견에 갇혀 다아시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는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우리 가까이 함께하시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나 자신도 바라보기 힘든 오늘 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가끔 그분의 현존하심에 집중해보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분명 그 현존하심으로 인해 그분의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김용(T.아퀴나스) 신부**  
총장(육군 제31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사도 2,1-11

**회 답 송**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제 2 독 시** 1코린 12,3c-7.12-13

<b>부 속 기</b>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빛	그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빛.
	가장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손님	저희생기	둔우소서.
	일할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빛	저희마음	깊은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도움	없으시면	저희삶의	그모든것	해로울 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땅	물주시고	병든것을	고치소서.
	굳은마음	풀어주고	차디찬맘	데우시고	빛나간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덕행공로	쌍게하고	구원의문	활짝열어	영원복락	주옵소서.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설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 음** 요한 20,19-23

**영 성 제 송**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 고성대 베드로



성인명: 고성대 베드로 (高聖大 Peter)

신분: 독신, 순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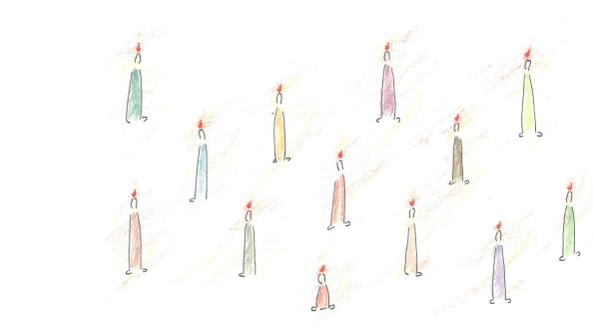
활동연도: ?-1816년

‘여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고성대(高聖大) 베드로는, 충청도 덕산의 별암(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장리)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부모에게 천주교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그는 본디 성격이 매우 포악하여 사람들이 가까이하기를 꺼렸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뒤로는 그러한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고 베드로는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였다. 언제인가는 아버지가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자, 그는 아우인 고성운 요셉과 함께 8개월 동안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였다. 또 그들 형제는 언제나 합심하여 성경을 읽고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는 데 열심이였으므로, 모든 신자들의 모범이 되었다. 이후 고 베드로는, 고산 저구리(현, 전북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1801년 신유박해 때 전주 포졸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내 전주로 끌려간 그는 처음에는 용감하게 신앙을 증언하였지만, 목숨을 보전하려는 유혹에 넘어가 석방되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온 고 베드로는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고, 이후로는 가끔 “이 큰 죄를 보속하려면 칼을 맞아야 마땅하다.”고 되뇌곤 하였다. 그러다가 아우와 함께 경상도의 청송 노래산(현, 경북 청송군 안덕면 노래2리)으로 이주하여 그곳 신자들과 함께 비교적 평온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였다.

1815년, 고 베드로와 요셉 형제는 교우들과 함께 예수 부활 대축일을 지내다가 밀고자를 앞세운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경주로 압송되었다. 이때가 그해 2월 22일경이었다. 경주로 압송되어 문초와 형벌을 받는 가운데서도 고 베드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신앙을 굳게 지켰다. 그러자 경주 관장은 그들 형제와 함께 배교를 거부하는 모든 교우를 감사가 주재하는 대구로 이송하였다. 대구에서는 또다시 문초와 형벌이 여러 차례 이어졌으며, 17개월이 넘게 괴로운 옥중 생활을 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고 베드로는 한결같이 이러한 고통을 참아 내면서 신앙을 증언하였다. 그런 다음 사형 판결을 받고, 1816년 12월 19일(음력 11월 1일)에 아우와 함께 대구 형장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당시까지 그는 혼인을 하지 않은 채 동정을 지키고 있었다. 고 베드로의 시신은 형장 인근에 매장되었다가, 이듬해 3월 2일 친척과 교우들에 의해 그 유해가 거두어져 적당한 곳에 안장되었다.

###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 사랑의 불꽃

사랑의 불꽃을.  
성령의 불꽃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가는  
그 길이.  
사랑의 길이  
되라고.  
성령의 길이  
되라고.

상화이야기

성령강림



에밀놀데(1867-1956)  
1909년 작, 캔버스 위 유화  
베를린 미술관, 독일 베를린

이 작품을 본 어떤 비평가는 이렇게 말했다. 이 그림의 주제는 성령강림이지만, 성령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한 가지 형태를 띤 사물이 아닌 것처럼, 성령을 맞이하고,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반응들,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받는 은혜 및 행하는 행동 또한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화가가 나타내고 있다고 말이다.

화면 가까이 앉은 제자들 위에 보라색 불길로 표현된 성령이 강림하고 계시며, 이들의 표정은 각기 다양하다. 어떤 제자는 기뻐하지만 어떤 이는 초조하거나 흥분한 상태로 보이며, 어떤 제자는 다른 제자의 손을 꼭 잡고 있다.

이 그림을 그릴 당시, 화가는 “깊은 영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주체할 수 없는 필요에 따라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말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는 이 그림 속 나오는 인물 중 어떤 이들처럼 행동할까.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우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성령 강림 대축일: 백골 임재혁 신부

◆ **국제군인 상지순례대회**  
 때: 5월 10일(목)-23일(수), 12박 13일  
 곳: 프랑스(루르드), 스페인

◆ **‘군중의 시간’ 인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군 복음회, 변함없는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